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 설립 시 예타 면제해야”

김승남 ‘인구감소지역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고려 등 입법 보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로 약 49.6%의 시·군·구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포함돼 있었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

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중소기업에 조세 특례 등이 상당수 제외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

증축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국책사업 공모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지방비 분담비율 축소, 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제,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놓여진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특례 조치 없이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법 제정 당시 제외된 여러 특례 조치를 도입해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부자감세 추진 규탄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자감세 추진 등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협뉴스

국회, ‘1주택 종부세 완화’ 여야 충돌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 주장으로 맞섰다.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불참하

면서 ‘반쪽짜리’가 된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만 진행됐을 뿐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현재 기재위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뿐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종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날 30일 열릴 예정이다. /연협뉴스

주철현 “무소불위 감사원,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4일 ‘감사원 개혁이 시급합니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감사원의 무소불위적이며, 강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조사는 기본이고,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는 귀를 닫고 법적 근거도 없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강압 표적 조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보고서에서 문서 내용을 거꾸로 인용하고 앞뒤가 모순되지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준수법 기관의 수사 결과를 뒤집기도 한다. 감사 대상자는 후환이 두려워 이

의 제기도 못하고 감사원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고소·고발에도 감사 대상인 수사기관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들이 감사원의 오만과 불법·탈법을 극에 이르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감사원, 공직자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감사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

김원이, 섬 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병원선 3법 통해 취약지역 격차 해소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24일 “전남·경남·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복지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남과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4일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을 위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로 만 9세 이하 인구가 16.5%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66.5%로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개교에 따라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시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련 학교는 5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나 전남·충남·충북·경북 등 4개 도만 없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제학교 유치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게다가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3천895명에서 2022년 3만9천210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주 내 학령인구(8-19세)는 2019년 1만1천565명에서 지난해 1만2천102명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교육, 일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지방에도 청년들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며 “올해 출범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미래 세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선도적 준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김건희 팬클럽,尹 ‘대외비’ 일정 유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됐다. 24일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집결 장소까지 기재됐다. 동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경호 엠바고)에 부처진다. 출입기자단에 경호 엠바고 조건으로 사전 공지된 개괄적인 ‘대구 방문’ 일정보다도 세부적인 동선이 팬클럽 채널에서 사실상 공개된 것이어서 경호·보안상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래시장 방문은 그 자체가 사전 예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